서윤영의 집과 사람

아파트 ; 순치를 위한 도구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나 선거철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약 중 하나가 주택정책이다. 과거의 내 집 마련이든, 요즘의 집값 안정이든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 중의 하나인데, 이것 또한 사회를 순치(順治)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때는 19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밀려 든 이들 때문에 극심한 주택부족 문제를 겪게 된다.

이들은 주로 아일랜드의 빈농들이었는데 서너 명의 아이가 딸린 가족이 단칸 방에서 생활했다. 부엌은 화로 하나에 냄비 하나를 걸어 놓은 것이 전부였고 수도와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화장실을 이용했다. 습기 차고 어두운 지하셋방, 불결한 위생상태 속에서 콜레라와 페스트, 결핵이 창궐하여 1830년대 숱한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인간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다.

한편으로 산업혁명은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집단을 등장시켰다. 도제식 수업을 통해 직능을 쌓아 나가던 중세의 장인과 달리 몇 백 명의 노동자가 한데 모여 일을 하면서 이들은 점차 거대집단이 되어 갔다. 프랑스 대혁명 때 빵을 달라고 소리치던 가난한 군중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배고픈 노동자는 사회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였고, 이에 영국정부는 대규모 집단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는 간단한 집이었는데, 이것이 좌우로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마치 줄을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로우 하우스(row house)라고도 불렸다. 이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 주택사업의 일부였다. 또한 대규모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를 마련했는데, 주로 공장주가 근로자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집단주택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기숙사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공동주택에 근로자들은 개별 주호를 제공받아 저렴한 가격의 월 사용료를 내면서 생활했다. 이런 형태는 공장의 기숙사나 사택 등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 한편 다른 형식의 공동주택을 제안하는 이들도 있었다. 저소득층에게 공동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았지만, 무상제공 대신 매매를 통한 자가소유제도를 주장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이나 협회에서 빌려준 뒤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국가나 사회단체들은 이런 사업을 앞다투어 실시했는데, 이는 매달 정해진 수익이 보장되는 일종의 수익사업이자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이익도 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매달 월급 중에서 일정액을 주택 융자비용을 갚는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고를 당할까 파업이나 폭동 같은 과격행위를 자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온순해졌다. 또 주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가 아닌 당당한 도시민이자 중산층이다' 라는 의식을 갖게 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에게 중산층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노동자임을 잊게 만들어, 그들의 관심사를 노동환경의 개선이 아닌 도시 중산층으로서의 삶으로 흥미로 옮겨 가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100여 년의 시간을 두고 한국에도 상륙하게 된다.

1960~70년대 빠른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내세운 구호는 자립자조였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 의지를 돋우어 주택 구매를 유도했던 유럽의 전략과 일치한다. 주택 구매를 시민계급으로의 편입과 동일시하여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잠재웠듯 1970~80년대 우리나라도 아파트 거주는 곧 중산층 편입과 동일시되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 하에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서민들이 이를 매달 조금씩 정기적으로 갚아 나가게 하는 제도는 시대별로 명칭의 차이는 있을 망정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이번 달에 월급을 받아 20년 모기지론의 일부를 상환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주말여행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손수 전원주택을 지을 궁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정치나 사회 등의 복잡한 문제는 머릿속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주택을 사회적 순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그 기원은 19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래서 지금도 선거철이면 주택정책이 언제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건축 칼럼니스트〉

종교칼럼

경전의 매뉴얼

일 선
장흥 보림사 주지

도량에는 하얀 불두화(佛頭花)가 봉긋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이니 스스로 가장 높고 존귀하다고 선언하신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새벽 도량석(道場釋)을 울리니 밤새워 피 울음으로 어둠을 밝히던 소쩍새는 울음을 그치고 이제 숲에 누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여러 영가(靈駕)님들의 커다란 슬픔을 소쩍다고 위무(慰撫)하다가 어느덧 빛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2500여 년 전 인도 가비라국의 왕자님으로 오셔서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떨치고 발심 출가하여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겉으로는 모양이 달라서 차이는 있지만 생명의 본질은 스스로 둥글고 원만하여 지혜와 덕을 구족(具足)한 완전한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은 이러한 진실을 등지고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라는 어둠에 물들어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고 대자비심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기에서 커다란 발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이웃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아픔이라는 동체 대비심으로 너와 나는 분리할 수 없다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니 서로서로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고 대자비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면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인연이어서 세상의 질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평생 길 위에서 설법하시고 몸으로 실천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위로하고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자 상수제자인 가섭존자는 다문제일인 아난존자로 하여금 평생 설법하신 내용을 구술하게 하여 매뉴얼로 결집시켰는데 이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경전의 내용은 크게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배우고 닦는 것으로 한 글자로 요약하면 마음심(心)자입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가 되면 세상의 업력을 떨치는 행자 수업을 거치고 매뉴얼을 따라서 지켜야할 계를 받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 공부를 마치면 선정 삼매를 닦는 참선 수행을 하여 반드시 깨달아서 대자비심을 실천하여 세상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으면서 위기 관리의 해법으로 모든 재난에 대처하는 매뉴얼 작성과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얻어진 값진 경험들이 축적되어 더욱 완벽한 매뉴얼이 되었고 빈틈없는 실천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커다란 국가적 재난은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삼십여 년의 출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매뉴얼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아직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저마다 부처님으로 화현(化現)하여 세상은 고해이니 동체 대비심으로 살아가라는 커다란 가르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살점을 도려내는 참회를 통해서 더욱 정진하여 반드시 정각을 이루어 세상의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하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리를 섬으로 삼고 이제까지 가르쳐 준 말씀의 매뉴얼을 의지하라"고 최후의 유훈을 주셨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기 고

향토음식 소박한 매력으로 농촌관광을 더 행복하게

고 윤
담양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장

우리 농촌은 주민의 생활과 식량생산,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 공간으로서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의 효용가치를 십분 활용해 정부는 농촌관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농촌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농촌관광산업이 민박과 체험 등으로 그치고 있어 농촌관광이 지역의 다양한 먹을거리인 어머니 손맛 반찬, 한식, 한과, 절임·숙성 식품, 전통음료, 토속주 등 향토음식의 판매 등과는 연계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제도적인 제약도 향토음식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현재의 민박 허가만으로는 주인 할머니가 도시 관광객에게 손맛과 정성을 담은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고 약간의 식재료비를 받는 것조차도 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주제로 한 여행 '식려(食旅)'가 주목받고 있다. 여행지의 음식 하나만으로도 여행객을 찾게 하고 그 음식 하나로 관광객을 매료시켜 상품화시키는 것이다.

이 여행의 특징은 기존의 단순히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 먹고 오던 관광과는 달리 산과 들, 바다가 보이는 식당이나 민박집에서 주인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지방만의 토속적인 음식과 그 속에 녹아 있는 문화를 체험하며 관광객들은 소박하지만 정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도 농촌관광(Rural Tourism)과 함께 '푸드 투어리즘'(Food Tourism)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전통음식을 농촌관광과 연계시켜 관광을 더욱 풍부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푸드 투어리즘'을 녹색 체험관광(Green Tourism)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향토음식 체험 관광'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 같다. 그 지역 특유의 차별화된 전통식품을 녹색 체험관광에 가미시켜 농촌관광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음식과 식품의 판매가 활성화되면 규모가 영세하고 마케팅력이 취약한 지역 전통식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전통식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가 보장될 것이다.

또한 '향토음식 체험 관광'은 지역의 토양, 기후, 토종농산물, 전통식품 등 그 지역만의 입지적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내생적 발전을 유도하여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농촌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내려온 향토 음식이 전국 각지에 많다.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촌관광과 연계한다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와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전통의 맛을 이어 갈 수 있는 엄격한 식재료의 사용과 대물림해 온 조리법을 체계화하고, 향토음식앞에 붙는 지역 명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토록 하는 것도 급선무일 것이다.

전주 비빔밥, 남원 추어탕, 담양 떡갈비, 광양 불고기처럼 지역 명칭이 붙는 향토 음식을 더 육성하고 홍보해서 '향토음식 체험관광'이 농촌의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해본다.

社 說

광주시장 선거 과열·불탈법 우려 크다니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윤장현 후보와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이용섭 후보가 7일 일제히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야말로 선거다운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민선 실시 이후 역대 광주시장 선거는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왔다. 유권자들은 달리 선택의 여지 없이 몰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 말 뿐인 대의정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지지율에서 윤장현 후보보다 앞섰던 강운태·이용섭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흥행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방'이라는 점에서 윤 후보의 당선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소속 후보 간에 단일화 문제는 두고 볼 일이나 전직 시장이었던 강 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 후보 모두 배수진을 치고 있어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윤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것은 지역 내 여론 분열과 갈등이다. 과열 양상에 따른 불·탈법과 혼탁, 인식공격 등의 개연성도 다분하다.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전이 전개될 경우 민주도시 광주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이제 선거의 공이 시민들에게 돌아간 만큼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 정책 대결과 비전 제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권자들 역시 금품과 향응 등 혼탁선거에 휩쓸려선 안 된다. 잘못된 선택은 유권자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아름다운 감동을 줘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된 해양실습선 운항해서야

세월호 참사로 선박안전에 대해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내 해양실습선이 매우 낡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습선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승선함에 따라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선상 무지개학교'에 학생들을 투입해 왔던 목포해양대 실습선 3600t급 새유달호는 1993년 건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때마다 중학생 200명을 태우고 독도와 일본·중국을 돌며 견문을 넓히는 무지개학교에 쓰인 선박은 세월호보다 1년이 더 지난 22년이나 된 낡은 배였다.

뒤늦게 전남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해 선상무지개학교 코스를 취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행사에 참가했던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처럼 노후된 선박으로 멀고 험한 바닷길을 항해해 온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철렁해질 것이다.

또 다른 실습선인 4700t급 새누리호는 건조된 지 12년으로 비교적 괜찮지만 전남대 수산계열(여수캠퍼스) 실습선 1000t급 동백호는 새유달호와 마찬가지로 22년 된 노후선박이다. 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학 실습선 현황을 보면 전체의 66.7%가 선령 20년이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속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양학과 관련 학생들은 이처럼 오래된 실습선으로 한 달 이상씩 운항하는 것이 관례다. 다행히 그동안 큰 사고가 없어서 망정이지 혹여 외국의 망망대해에서 불상사가 빚어진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대대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실습선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더 이상 운항이 어려운 실습선은 폐기하고 신규 선박을 건조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시(詩)노래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대답하면 너 말고 네 아범." 이자람은 이 노래 덕에 오랫동안 '예솔이'로 불렸다.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 그녀는 '춘향가' 등 판소리 완창 무대를 가진 소리꾼이다. 특히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 희곡에 판소리를 접목시킨 '사천가'와 '억척가'는 평단과 관객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전방위 예술인인 그녀는 '아마도 이자람밴드'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부른다. 최근 그녀가 시(詩)노래 음반, '크레이지 배가본드'를 발표했다. '가난이 직업이었던' 시인 천상병의 시를 가사로 삼아 만든 곡들이다.

"그날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둑했던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 값이 남았다는 것.(중략)/ 가난은 그의 직업이었지만/ 비쳐오는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햇빛에도 예금통장은 없었을 테니까"('나의 가난은')

"지금은 다 뭣들을 하고 있을까?/ 지금은 얼마나 출세를 했을까?/ 지금은 어디를 걷고 있을까?"('동창') "오늘의 바람은 가고 내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잘 가거라 오늘은 너무 시시하다/ 뒷시궁창 쥐새끼 소리 같이"('크레이지 배가본드')

이자람의 묘한 목소리는 매력적이다. 멜로디를 타고 흐르는 시인의 글은 따뜻하면서도 아리다.

'시노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7일 광주에서 열렸다. 메조 소프라노 진진 씨의 공연이었다. 음반 '바람의 무늬' 발매 기념 콘서트였던 이날 공연이 반가웠던 건 시노래를 발표해 온 '포엠 콘서트'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열려서였다.

이날 공연에는 작곡가 한보리·오영묵·나무·진진 씨 등 포엠 콘서트의 오랜 벗들이 의기투합했다. 그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에 주옥 같은 시를 내어준 시인 나희덕과 박남준도 함께였다. 진진이 부르는 박두규의 시 '어쩌면'과 곽재구의 시 '사월의 노래', 나무가 부르는 나희덕의 시 '아카시아'는 깊은 울림을 줬다.

대중가요에 친숙한 이들에게 시노래는 어쩌면 낯선 경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에 실린 시어 하나, 시 한 구절에라도 마음이 꽂히면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게 또 시노래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